

#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2015. 11. 25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 ■ 목 차

### I . 문제 제기

### II .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 III . 국내 금융그룹 감독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IV .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 V . 향후 과제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확대로 동종 및 이종업종간  
합종연횡이 증대하면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증대하는 추세

- 전 세계적 자율화 및 개방화의 확대에 따라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국경을 넘는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간 인수·합병이 널리 확산되는 추세
- 이에 따라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는 물론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수요의 변화, 금융기술혁신, 겸업화의 확대 허용 등 규제완화는 이종업종간 결합을 촉진시켜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의 출현을 가속화



## 복합금융그룹내 회사간 상호관련성(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 발생

- ① 계열사 출자로 자본이 중복계상(Double gearing)되어  
위험대비 자기자본 과대평가
- ② 그룹내 은행·보험사 고객자금의 자회사등 지원 유인
- ③ 사업구조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른 부당내부거래, 이행상충행위의 적발 곤란
- ④ 규제비용이 적은 금융회사로 위험전가 ⇒ 특정 금융회사로 위험 집중 초래



# I . 문제 제기



선진국은 일찍부터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금융그룹 감독 수준은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

Joint  
Forum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은 1996년 Joint Forum를 설립해 1999년 및 2012년 복합금융그룹 감독원칙 제시

유럽

"복합금융그룹지침"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EU회원국들로 하여금 법제화를 추진토록 요구

일본

금융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안)"을 발표하고 감독·검사간 연계강화



## ■ 목 차

I . 문제 제기

II .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III . 국내 금융그룹 감독 현황 및 개선 필요성

IV .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V . 향후 과제

유럽에서는 '90년대말 이후 은행·보험사간 M&A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은행·증권·보험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 크게 증가

- 복합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업을 그룹단위로 영위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과는 상이한 리스크를 포함

복합금융그룹이 야기한 금융감독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 등 각 권역의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대책 마련

-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는 1993년 모든 권역의 공통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Tripartite Group을 구성했으며 1995년 7월 보고서 발간
-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가 중심이 되어 Tripartite Group 보고서의 실천을 위해 1996년 1월 Joint Forum을 설립
- \*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EU위원회가 옵저버로 참가

Joint Forum은 1999년 다음과 같은 “금융그룹 감독원칙 초안” 제시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이행하도록 권고

- 자본의 과다계상(excessive gearing) 방지를 포함한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 기법
- 감독자간 정보공유 촉진
- 감독자간 조정
- 금융그룹의 경영자, 임원 및 주요주주의 적격성 평가
- 금융그룹내 위험집중, 내부거래 및 익스포저의 건전한 관리 및 통제

금융그룹을 “은행, 증권, 보험 중 최소 2개 부문에 걸쳐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공통의 지배 아래 있는 금융기업” 으로 정의

- 그룹감독은 개별 금융기업의 감독과 독립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

Joint Forum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및 개별 국가의 경제안정에 금융 그룹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2년 '1999 감독원칙' 을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기존의 규제요건 및 감독방식으로는 금융그룹의 모든 금융 업무를 통제하거나, 금융그룹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
- '1999 감독원칙' 이행에 관한 "Internal review(2009)"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그룹내부 거래에 관한 원칙을 개정하고, 특수목적회사(SPE) 및 금융그룹 지주회사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를 권고
- "금융규제의 차별적 속성 및 범위에 관한 검토(DNSR, 2010)"는 모든 금융그룹, 특히 글로벌 금융그룹의 모든 업무 및 위험을 규제 및 감독해야 하며,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규제차익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2012년 감독원칙은 Joint Forum의 회원기관(BCBS, IAIS, IOSCO)이 제시한 각 금융권역의 최신원칙을 반영하여 다음을 강조

- 자본의 과다계상 포착 및 정정
- 금융그룹 전체 위험 평가(위험 전이·집중·복잡성 및 이해상충 등)
- 규제차익 최소화

### 감독원칙의 주요 개정 내용

-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감독기구에게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그룹차원의 감독 (group-wide supervision)\*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력, 권한 및 자원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 \* 비규제대상 회사(그룹 대표회사 포함)로부터 야기되는 위험관련 정보 접근 포함
- 그룹차원의 감독을 수행하는 감독기구에 대해 복합금융그룹이 건실한 지배구조, 자본, 유동성 및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 주요 감독 내용

금융그룹 감독원칙은 금융그룹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의 책임,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리스크관리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감독자의 권한	그룹차원의 종합적인 감독 수행에 필요한 권력, 권한 및 자원을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명확한 법적 체계의 필요성 강조
감독자의 책임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기준을 실시하고,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의 감독기구의 역할 및 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원칙을 설정
지배구조	복합금융그룹의 경영 및 지배와 관련된 임원 등의 적격성 관련 원칙을 통해 적격성 원칙의 중요성 재확인 강조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그룹 전반 리스크에 주목하여 비규제기업의 활동을 포함한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감독자 역할 강조
리스크관리	그룹단위 리스크 집중과 내부거래 관리·보고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의 필요성 강조

### Joint Forum의 금융그룹감독원칙

구 분	금융그룹감독원칙
감독자의 권한	1. 포괄적 그룹감독(Comprehensive group-wide supervision) 2. 협력과 정보교환(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3. 독립성과 책임명시(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4. 감독자원(Resources)
감독자의 책임	5. 그룹감독자(Group-level Supervisor) 6. 감독자간 협력(Supervisory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7. 건전성 기준과 범위(Prudential standards and coverage) 8. 감시 및 감독(Monitoring and supervision) 9. 감독수단과 강제(Supervisory tools and enforcement)
기업지배 구조	10. 금융그룹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in financial conglomerates) 11. 금융그룹의 구조(Structure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12. 임원 등의 적격성(Suitability of board members, senior managers and key persons in control functions) 13. 지주회사 이사회 책임(Responsibility of the board of the head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 14. 보수(Remuneration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자본 적정성	15. 자본적정성 요구 16. 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 17. 자본의 이중계상 고려 18. 과도한 레버리지 고려 19. 내부거래 고려
유동성	20. 지주회사 유동성 고려
리스크 관리	21. 독립성, 포괄성, 효과성(Risk management framework) 22. 리스크관리 문화(Risk management culture) 23. 리스크허용한도및리스크성향 정책(Risk tolerance levels and risk appetite policy) 24. 신사업의 위험평가(New business) 25. 아웃소싱(Outsourcing) 26. 리스크 상황분석(Stress and scenario testing) 27. 리스크 통합(Risk aggregation) 28. 리스크 집중 및 내부거래, 익스포져(Risk concentrations and intra- group transactions and exposures) 29.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activities)

## 추진 경과

EU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02.12월)하고 회원국들에게는 자국 내 법제화를 통해 '05 회계연도부터 시행

- EC는 1999년 그룹차원에서의 복합금융그룹 감독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권별 감독을 보완하기 위한 건전성규제의 개발을 발표
  - Joint Forum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원칙(1999)을 이용하여 '02.11월 복합금융그룹감독지침(FICOD)을 제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그룹 내 및 금융기관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그룹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FICOD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11년 12월 FICOD 개정안(FICOD1) 확정
    - \* FICOD1은 Joint Forum의 2012년 수정보고서에 반영
- EU 지침(European Union Directive):EU 의회가 제정한 지침(legislative act)으로 회원국들은 일정 기한 내에 자국내 입법화(national legislation) 과정을 통해 동 지침을 시행. 자국 내 입법화 작업을 기한내 완료하지 못하거나 입법내용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EU 집행부(European Commission)는 EU법원에 당해 회원국을 제소

###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

: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 <1>,<2>,<3> 모두 충족

- <1> "은행·증권부문"과 "보험업부문"에 각각 최소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보유  
\* 유니버설뱅크 체제가 일반적임을 고려
- <2>-1 모회사\*가 감독대상 금융회사 또는 그룹내 최소 하나의 자회사가 규제대상 금융회사  
\* 금융부문내 회사의 모회사, 금융부문내 회사에 지분참여한 회사, 금융부문내 회사와 Link를 맺은 회사
- <2>-2 모회사가 감독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 금융부문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40%를 초과(금융업이 그룹의 주된 영업으로 인정되는 기준)
- <3>금융권역 활동의 중요성 기준
  - ① "은행·증권부문"과 "보험업부문"의 총자산, 필요자기자본의 비중이 그룹내 금융부문 전체에서 각각 10% 초과
  - ② 그룹내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금융부문의 자산규모가 60억 유로(약 8조원) 초과

※ 급격한 구조변화를 피하기 위해 식별기준 충족을 3년간 연속적으로 고려하고, 그룹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40% 및 10% 기준을 그 이후 3년간 35% 및 8%로 하향조정하고, 가장 작은 금융부문의 총자산 기준도 50억 유로로 하향 조정

#### 가. 자본적정성 규제(Capital Adequacy)

EU회원국은 복합금융그룹 내 각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지침의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보완적 자본적정성 기준을 항상 충족하도록 요구

- 자본적정성 계산방식은 자본 중복이용(double gearing)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국은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 평가 및 정기적(연 1회 이상) 보고 의무가 있음.
- 그룹의 필요자기자본 산정식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EU는 각국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적당한 산정식을 선택하도록 허용

그룹감독기구(group supervisor) \* 는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정해진 자본적정성 계산방식(아래 방식 중에서 감독기관 선택)에 의해 최소 연 1회 시행되는지를 확인

\* 복합금융그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금융업의 감독당국, 여러 국가에 걸쳐 금융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산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이 위치한 국가의 주무감독기관

#### <자본적정성 계산 방식>

##### ① 연결회계방식(Accounting Consolidation Method) :

: 연결자기자본 - 각 업종의 필요자기자본 합계  $\geq 0$

내부거래 상계 후 산출된 연결재무제표상의 연결자기자본이 개별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 합계보다 커야 함

##### ② 차감·합산방식(Deduction & Aggregation Method)

: 각 사의 자기자본합계 - 각 사의 필요자기자본 합계 - 그룹 내 상호지분의 장부가액  $\geq 0$

※ 개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합계액이 개별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합계액과 그룹내 출자액(장부가)의 합보다 커야 함

➡ 개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여유액을 초과하는 그룹 내 출자를 금지하는 효과

##### ③ 장부가·필요자기자본 차감방식(Book value & Requirement Deduction Method)

: 모회사 자기자본 - 모회사 필요자기자본 - Max(모회사그룹회사지분의장부가액, 자회사필요자기자본)  $\geq 0$

※ 모회사 자기자본이 모회사 필요자기자본과 (자회사 필요자기자본, 자회사출자액(장부가))중 큰 것의 합계액보다

커야 함 ➡ 자회사 필요자기자본 또는 자회사출자액의 모회사 자기자본 여유액\* 초과를 금지하는 효과

\* 모회사 자기자본에서 모회사 필요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 ④ 조합방식 : 계산식 1,2,3 의 결합(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geq 0$



#### 나. 내부거래 및 리스크 집중 보고 의무

내부거래 및 거액 신용공여는  
리스크의 수준과 양, 부실의 전염가능성, 규제회피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

- 금융회사는 모든 중요(significant) 내부거래를 감독기관에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보고
- 개별 회원국은 감독 목적상 필요시 지침서 내용 외에 내부거래에 대해 수량 제한과 여타 정성적인 규제를 추가 가능

금융그룹 감독자는 부문별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보고해야 하는 그룹내부거래와  
리스크 집중의 유형을 설정

- “중요” 거래는 규제자기자본(regulatory own funds) 또는 책임준비금(technical provision)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보고 대상
  - \* 중요 거래 : 내부거래규모가 규제자기자본(그룹기준)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금융그룹 감독자는 보고 받은 그룹 내부거래와 리스크 집중 등에 대해 리스크 전이 위험, 이해상충 위험, 부문별 감독규제와의 정합성 등에 유의하여 검토

#### 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제

EU회원국은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복합금융그룹 수준에서 건전한 행정 및 회계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함

- (리스크관리) 건전한 통제 및 관리, 적절한 자본적정성 시책, 위험감시 시스템의 구축 및 유효성 확보 의무
- (내부통제 시스템) 중요 위험의 인식·측정, 자기자본과 위험을 관련 짓는 체제,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보고체계와 회계시스템 구축

#### 라. 그룹감독기구(group supervisor)의 선정 및 업무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 감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주감독기관 중 하나를 그룹감독기구로 선정

- 특정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의해 복합금융그룹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주무감독기관이 그룹감독기구의 역할 담당
- 모회사가 비규제 대상기관일 경우 그룹 내 금융기관이 총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룹감독기구를 선정
  - \* 상기 그룹감독기구 선정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은 아니며 회원국 감독당국간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

#### 보완적 감독과 관련하여 감독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권역별 규정 하에서 주무감독기관의 감독업무 수행에 중요한 정보의 전달, 현안 및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 관련된 조정업무
- 복합금융그룹의 재무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
-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리스크 집중 및 내부거래와 관련된 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 복합금융그룹의 구조, 조직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 관련주무감독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한 현안 및 긴급 상황에 관한 감독활동의 계획 및 조정

영국은 2005년 1월부터 EU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여 실시

- 2002년 EU의 지침이 채택되면서 자국내 법제화를 위해 재무부가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s)을 제정하고 관련 조항 정비

복합금융그룹 유형은 기본적으로 EU지침과 동일하게 분류하지만 권역별 연결규정 적용과 주력 금융부문 판단을 위해 다음의 형태로 구분

- 보험복합금융그룹: 은행 및 투자서비스부문을 하나로 간주하였을 때 보험부문이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인 경우
- 저축대부조합 복합금융그룹: 보험부문이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이 아니고, 복합금융그룹이 저축대부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 은행복합금융그룹: 보험부문이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이 아니고, 복합금융그룹이 저축대부조합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며, 은행부문이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인 경우
- 투자서비스복합금융그룹: 보험부문이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이 아니고, 복합금융그룹이 저축대부조합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며, 은행부문이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도 아니고, 신용기관에 의해 복합금융그룹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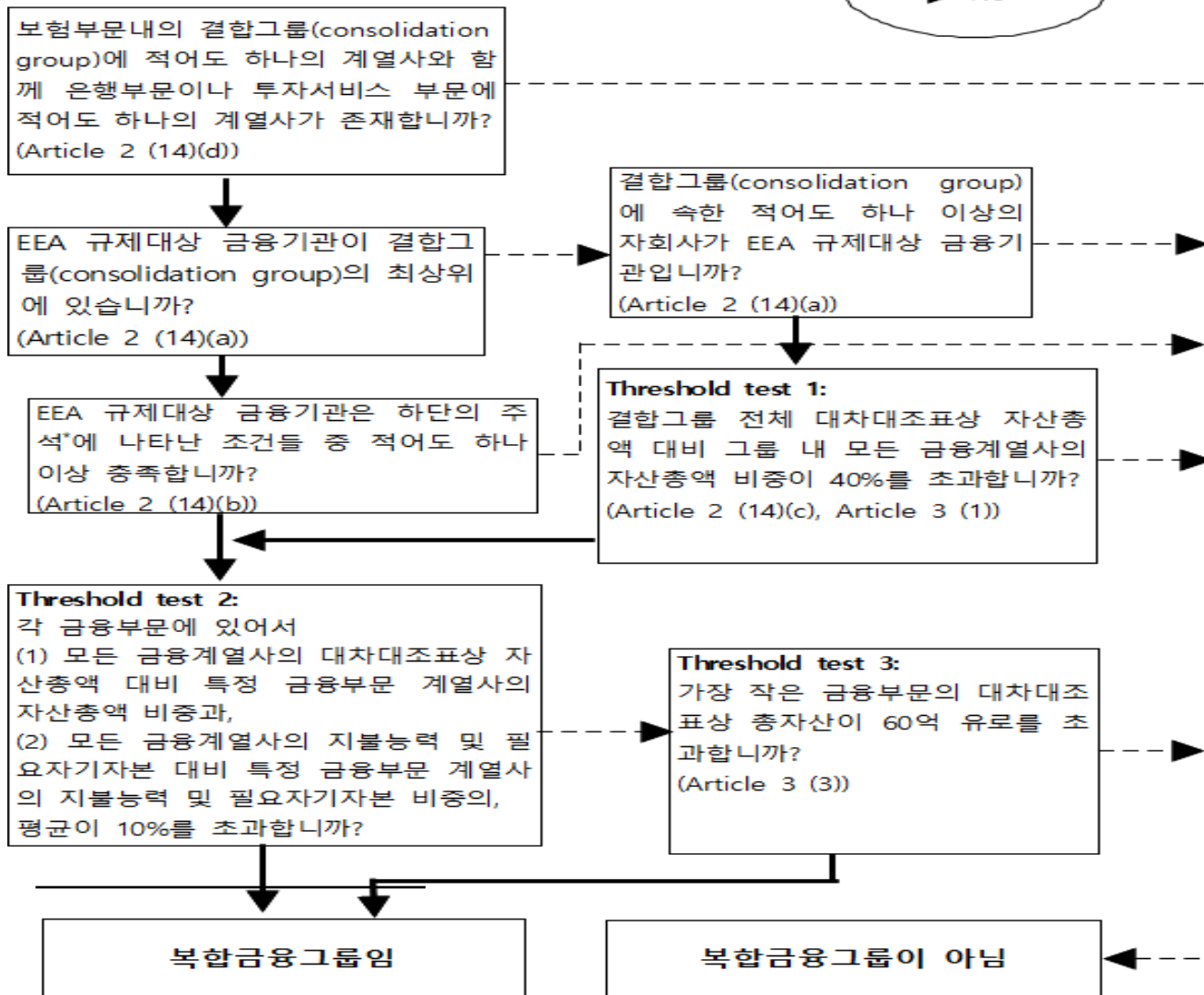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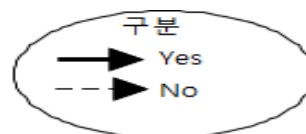
#### 복합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조건에 따라 판정표의 threshold test에 의해 결정

- 보험부문과 은행/투자서비스 부문이 결합되어 있고, 양 부문에 최소 하나 이상의 계열사 존재
- 양 부문이 결합된 경우에도 EEA규제대상 금융기관이 그룹의 최상위에 있거나 자회사이어야 함
- 그룹의 최상위의 EEA 규제대상 금융기관은 결합그룹의 모회사이거나 계열사에 지분참여를 하거나, 계열사외 기타 결합관계에 있어야 함
- 결합그룹내 개별 금융부문은 자산총액, 지불능력 및 필요자기자본 기준으로 그룹내 모든 금융계열사의 총계와 비교하여 평균 10%를 상회하여야 함(THRESHOLD test 2)
- EEA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그룹의 최상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룹내 금융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이 그룹 전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THRESHOLD test 1)하고 THRESHOLD test 2를 만족
- THRESHOLD test 2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THRESHOLD test 3인 그룹내 가장 작은 금융부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60억 유로를 초과해야 복합금융그룹으로 분류
- ❖ 복합금융그룹이 Threshold test의 기준 수치를 충족하지 못한 시점부터 3년간 복합금융그룹 기준수치를 변경 적용  
1) 금융업비중 40%→35%, 2) 자본비중 10%→8% 3) 최소 금융부문의 총자산 60억 유로→50억 유로

### 3. 영국 PRA 그룹리스크 감독

### II.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 복합금융그룹 판정표



※주석: 조건은 결합그룹을 운영하는 EEA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1) 모든 금융부문에서 결합그룹 구성원의 모회사이거나; 또는

(2) 모든 금융부문에 있는 결합그룹의 구성원에 대해 지분참여(participation)를 하고 있거나; 또는

(3) 모든 금융부문에 속한 결합그룹의 구성원과 consolidation article 12(1)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 만족됨.



## 자본적정성 규제

- EU지침의 조합방식 선택(보험 방식②③. 은행 및 증권부문 ①③)

## 내부거래 및 리스크 집중 보고의무

- EU 지침은 각국이 정량적 제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연 1회 보고의무 만을 부여

## 내부통제 체제

- 건전성요건(prudential requirement)의 준수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정보 및 데이터 생산에 적합한 메커니즘(보고사항, 자본적정성, 자본능력 및 거래 신용공여와 관련된 요건을 포함) 보유
-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메커니즘, 또는 그룹전체 혹은 그룹을 구성하는 일부에 대해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그룹 내 자금흐름을 감시하기에 적절한 메커니즘 보유

## 리스크관리 절차

- 건전한 지배구조 및 경영절차(management process) : 금융그룹 경영진은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융그룹의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승인 및 주기적 검토 수행
- 복합금융그룹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에 대한 적절한 정책  
: 복합금융그룹 영업전략이 복합금융그룹 및 구성기업의 리스크특성(risk profile) 및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함
- 복합금융그룹 및 구성기업의 리스크감시 시스템이 해당 복합금융그룹에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 필요
- 복합금융그룹을 구성하는 각 기업의 시스템 및 통제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복합금융그룹 수준에서 측정, 감시 및 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 필요

일본금융청은 「금융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그룹 감독과 별도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법제의 정비 및 감독·검사체제 구축을 추진

-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은행, 보험, 증권 지주회사 관련 규정은 각 업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 그룹화 진행에 따른 연결베이스의 자산내용과 그룹 내 거래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검사 매뉴얼을 이용하여 모금융기관 등과 금융기관 자회사, 해외거점 등 그룹을 일체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금융기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
- 금융환경의 변화로 복합금융그룹화의 진전이 지속됨에 따라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업태횡단적인 거래 등에 관한 감독사무의 기획, 입안 및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합금융그룹실」을 설치('04.11월)
- 이종업종의 거대 금융그룹의 형성에 대응하여 그룹의 적절한 경영관리체제, 재무건전성, 업무적절성 달성 지도 및 이의 파악을 위해 2005년 6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05.6월)

복합금융그룹은 국내 및 해외 금융금융 그룹의 경우 각각 ①과 ②에 명시된 기업(③ 또는 ④에 명시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포함)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의미함.

#### ■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보유한 법인이며, 당해 법인 및 그 자회사 중에 은행등(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중 2개 이상을 포함하는 자
- ② 위①의 자회사
- ③ 위①의 관련회사
- ④ 위①~③의 회사 외에, 내부관리 관련 업무를 ①의 기업 또는 자회사인 은행등과 공통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수행하는 회사

#### ■ 해외 금융그룹의 경우

- ①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보유한 법인이며, 국내에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서 은행등을 보유하며, 또한 당해 법인 및 그 자회사 중 은행등 중 2개 이상을 포함하는 자
- ② 위①에 해당하는 자의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
- ③ 위①에 해당하는 자의 국내 관련회사
- ④ 위①~③에 해당하는 자 외에, 내부관리 관련 업무를 ①의 기업 또는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인 은행등과 공통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수행하는 회사

복합금융그룹의 자회사와 관련회사는 자본금, 매출규모 등 수치상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의사결정기관의 지배유무(실질기준)에 따름

복합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등 경영관리회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분류

금융지주그룹	<p>금융지주회사를 경영관리회사로 하는 그룹으로서,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 장기신용은행지주, 보험지주, 금융상품거래업 지주 가운데 복수 또는 하나의 회사로서, 은행, 보험회사, 금융상품거래업자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회사임</p> <p>* 예 : 3대 메가뱅크(三井住友(미쓰이 스미토모)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三菱(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와 대형 증권회사 등</p>
사실상의 지주그룹	<p>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경영관리회사로 하는 그룹으로서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비금융회사임</p> <p>* 예 :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p>
금융기관모회사그룹	<p>금융기관모회사를 경영관리회사로 하며, 금융기관 중 자신과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회사임</p>
외국지주그룹	<p>'외국지주회사등'을 경영관리회사로 하며, '외국지주회사등'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보유한 법인이며, 국내에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 은행등을 보유하며, 당해 법인 및 자회사로 은행등 중 2개 이상을 포함하는 회사임</p>

일본 감독당국은 현재 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시 '금융지주회사 검사 매뉴얼'과 '복합금융그룹 (금융コングロマリット)감독지침'을 이용하고 있음

- 해당 금융그룹들은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에 따라 경영관리체제, 자기자본 충족, 리스크 관리체제, compliance 등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 2013년 3월말 현재 복합금융그룹은 국내계와 외국계를 포함하여 125그룹이며, 이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329개 기관임.
- 대형 은행그룹(국내 및 해외)에 대한 검사 시에는 필요에 따라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와 연대하여, 은행, 증권회사를 그룹으로서 일체적으로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노력



#### 가. 경영관리 평가 항목

그룹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진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영규율 및 유효하고 책임있는 경영관리태세를 구축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필요

- 경영관리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이사회는 그룹의 경영방침 및 경영계획을 설정하고 그룹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부감사에 힘쓰는 한편 적절하게 기능하는지 점검
- 또한 그룹의 업무 및 재무내용을 파악하여 그룹의 리스크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는 한편, 리스크에 대응하여 그룹의 적정수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점검
- 경영관리회사의 감사 및 감사회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도 실시하는 등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는지 점검.
- 경영관리회사의 내부감사부문은 그룹전체의 내부통제체제를 평가하며 피감사부문에 대하여 충분한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
- 그룹내 금융기관이 내부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영관리회사 또는 그룹내 타 회사와 공통의 임직원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관리 업무를 공정 내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 및 업무체제가 확보되어있는지 점검

#### 나. 재무건전성 평가 항목 (자본건전성)

그룹내 금융기관은 신인도 제고를 위해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과 시장규율에 따라 스스로의 재무건전성 및 업무적절성을 우선적 확보 여부를 점검

- 그룹내 개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법령 등에 기초하여 그룹내 금융기관간 상호출자를 통한 자본의 중복이용(double or multiple gearing)을 적절하게 배제하고 있는지 점검
- 복합금융그룹은 개별 금융기관의 평판리스크의 파급과 리스크의 집중 등 그룹으로서의 리스크에 추가로 노출되므로 그룹으로서의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
- 복합금융그룹내 회사들의 합산자기자본(자기자본 합계액)이 소요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합산자기자본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 합산자기자본과 소요자기자본은 각각 경영관리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경영관리회사 또는 그룹내 금융기관의 각 업법의 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정됨.

자본건전성 : 복합금융그룹 소속사들의 합산자기자본 - 소요자기자본  $\geq 0$

\* 경영관리회사가 작성하는 연결 F/S 및 각 업법의 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정

#### 나. 재무건전성 평가 항목 (리스크 관리)

경영관리회사는 그룹의 경영전략목표 달성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를 포함하는 그룹리스크관리방침을 설정하며 그룹내 금융기관은 이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방침 설정

- 그룹의 리스크관리방침은 경영관리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최소 연1회) 또는 전략목표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룹내 임직원 및 회사에게 주지되어야 함
- 경영관리회사는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계측, 감시, 관리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룹내 금융기관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일하며, 그룹내 리스크의 전파, 편중,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그룹의 신용공여 전략목표는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해 단기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특정 업종, 그룹 등으로의 신용리스크 집중을 배제하고 그룹의 경영방침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함
- 그룹의 자산운용 전략목표는 단기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시장리스크 집중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운용 대신 그룹의 경영방침 등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
- 그룹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침은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유동성리스크 정도가 적시에 파악되고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

#### 다. 업무의 적절성

##### 업무의 적절성 파악 위해 다양한 내부 절차 및 제도 점검

- 법령 등 준수(compliance) 체제 : 경영관리회사의 이사회는 법령 등 준수에 관한 그룹의 기본방침 및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그룹내 회사에 철저하게 주지시키는지
- 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는 시너지효과 발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룹내부에서의 리스크 이전을 수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체제의 적정성을 점검
- 운영리스크 관리 실태 : 경영관리회사의 이사는 조직의 복잡화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를 적절히 인식하고 필요한 권한의 이양, 명확한 책임분장, 최종 관리책임의 명확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
- IT리스크 관리실태 : 경영관리회사는 정보기술의 혁신에 맞추어 시스템을 경영전략의 일부로 인식하는 시스템전략목표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시스템 통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위기관리체계 : 그룹에 발생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contingency plan이 정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훈련 및 환경변화에 맞춰 재검토기준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는지 점검
- 고객정보보호 : 복합금융그룹에서는 고객정보가 그룹차원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상호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 등 고객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

#### 라. 감독사무의 처리 평가 항목

복합금융그룹 감독시 경영관리회사 및 그룹내 금융기관의 감독부서와 복합금융그룹감독실간의 협력을 강화

- 감독부서와 검사부서가 각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히 협력하고 상시감시(off-site)와 임점검사(on-site)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복합금융그룹 감독을 수행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해외 감독당국과 필요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협력을 강화
- 반면 국제적 복합금융그룹의 경영관리회사가 외국지주회사 등이며 일본에 거점을 갖는 경우 해외당국과 협조



## ■ 목 차

I . 문제 제기

II .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III . 국내 금융그룹 감독 현황 및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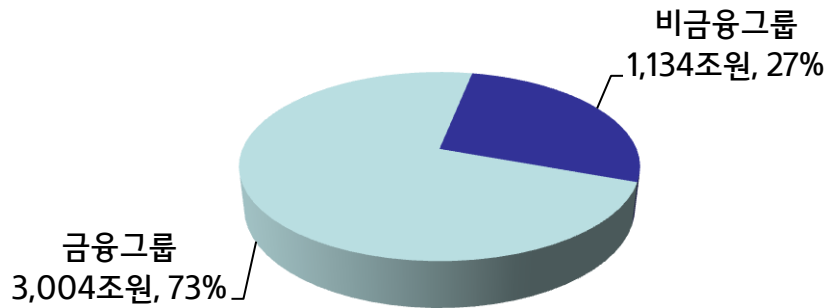
IV .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V .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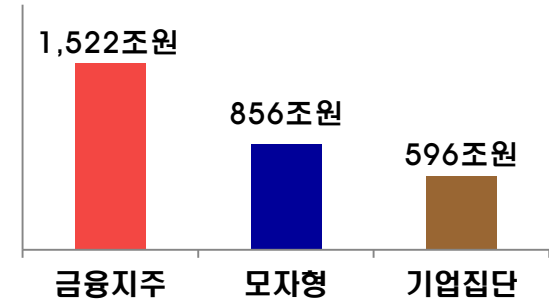
# 1. 국내 금융그룹 현황

## Ⅲ. 국내 금융그룹 감독 현황 및 개선 필요성

[금융산업 내 금융그룹 자산현황]



[금융그룹별 금융자산현황]



금융산업 내  
금융그룹  
현황

주요  
금융그룹  
현황

금융지주회사그룹			모자형 금융전업그룹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그룹(10개)			대부분 금융회사로 구성된 母子회사형 금융전업그룹(5개)			대규모 기업집단 61개 중 19개가 2개 이상 금융회사 보유		
그룹	금융자산(조원)	금융자산비중 (%)	그룹	금융자산(조원)	금융자산비중 (%)	그룹	금융자산(조원)	금융자산비중 (%)
신한	338	100.0	우리	270	100.0	삼성	313	50.3
농협	316	100.0	산은	227	100.0	한화	110	80.0
하나	316	100.0	기은	220	100.0	동부	42	80.8
KB	308	100.0	교보	86	99.5	태광	28	83.6
SC	462	100.0	미래에셋	53	98.3	현대	20	68.7
⋮						⋮		

- 1) 2014년말 기준 은행, 보험 증권업종 2개 이상의 이중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기준
- 2) 교보, 미래, 기업집단 계열금융그룹은 공정위 기업집단 공시자료(개별 F/S 기준)이고, 나머지는 각사 공시자료(연결 F/S 기준)
- 3) 교보, 미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모자형 금융전업그룹으로 분류



#### 가.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 미비

국내 금융그룹화는 진전되고 있으나 금융감독 체계는 개별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그룹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함

-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은 25개이며 금융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72.5%임('14년말 기준)

#### 최근 발생한 금융그룹 관련 사고는 금융그룹 감독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 2013년 동양그룹은 계열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한 부실 계열사 출자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
-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120여 개의 SPC를 통해 자금을 운용

#### 나. 금융그룹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결여

IMF는 14년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FSAP)에서 금융그룹 연결감독 미흡 지적

- 연결감독 :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사전예방적 분석이 미흡하며 주로 은행부문에 초점을 둔 개별감독(Stand-alone) 방식에 그침
- 리스크 관리절차 :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관리수준 평가가 미흡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리스크 관리를 연계시키는 규제가 미비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복합회사에 대해 별도의 정리제도 구축을 요구하는 등 금융그룹 처리 방식에 대한 관심 고조

금융지주회사 외의 여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 미구축

- 국내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적 신뢰를 유지할 필요

#### 다. 규제차이로 인한 금융그룹 규제의 실효성 반감

금융그룹 감독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그룹과 기타 금융그룹 간의 규제차이가 현격한 수준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그룹 감독 측면에서 그룹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완비되어 있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한 감독체계를 보유
- 모·자회사형 금융전업그룹의 일부와 계열금융그룹의 경우 자본적정성 규제에 있어 연결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룹 형태별로 상이한 규제환경에서는 금융그룹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어렵고, 민간부문의 전략적 규제회피현상(regulatory arbitrage)도 심화될 우려

#### 금융그룹 감독현황

##### 금융지주회사 그룹

###### 위험관리 체계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관리

###### 그룹차원 건전성

-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연결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건전성 감독 실시
  - 그룹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평가

###### 위험집중 내부거래

- 위험전이 및 위험집중 차단을 위한 자회사간 신용공여 제한, 불건전 내부거래 금지(법규로 제한)

##### 모자형 금융그룹

- 그룹의 위험관리 Control Tower 기능 부재
- 업권별 감독체계로는 그룹 위험관리 감독에 한계

- 일부 권역에서 제한적 자본적정성 평가에 그쳐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우려 상존
- 그룹 차원의 유동성 관리 미흡

- 업권별 규제차익을 활용한 특정 계열사로 위험집중 가능
- 계열사간 내부거래, 이해상충 차단장치가 미약

##### 기업집단 금융그룹



## ■ 목 차

I . 문제 제기

II .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III . 국내 금융그룹 감독 현황 및 개선 필요성

IV .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V . 향후 과제



###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을 보완

#### 위험전이 및 집중 예방

금융그룹 내 금융자회사 또는 비금융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을 통해 위험의 전이 및 집중, 상호연계성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 예방

#### 금융자원 오·남용 방지

금융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대주주 또는 소속회사를 지원하는 등 금융자원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지

####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금융그룹 및 소속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위험보유 수준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통제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복합금융그룹 내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



### 간접규제 방식과 직접 규제 방식의 비교

#### 간접 규제

#### 국제기준에 기초한 원칙중심의 모범규준 제정

: 금융그룹이 책임과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모니터링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자율에 의해 작동</li> <li>✓ 금융그룹 책임 제고</li> <li>✓ 높은 규제 유연성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차원 감독체계 구축 지연</li> <li>✓ 규제 이행력 약화</li> <li>✓ 규제집행 근거 취약</li> </ul>

#### 직접 규제

#### 법제화를 통한 의무 부여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포괄적인 직접규제 근거 마련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차원 감독체계 구축 실현</li> <li>✓ 미시적 및 거시적 건전성 연계감독 가능</li> <li>✓ 규제집행 및 규제효과 담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정 시간 소요</li> <li>✓ 금융그룹 감독 지연 가능</li> </ul>





### 단계적 감독체계 구축으로 제도 수용성 제고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기틀을 마련한 후 법제화로 실효적 금융감독체계 구축

#### <1단계: 간접규제> 금융그룹 개념 도입과 시장 자율규율

- ✓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자율감독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 곧바로 직접 규제를 채택시 법 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어 금융그룹 감독도 지체

#### <2단계: 직접규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건전성 감독규제 도입

- ✓ 금융그룹의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어 제도 수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법령을 통해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규제체제를 도입



## 쟁점 1. 동종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포함 여부

### 감독체계의 개념 분류 (호주 사례)

- 가. (Level 1) 개별 금융회사 대상 감독체계
- 나. (Level 2)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 다. (Level 3) 은행, 보험, 증권권역 중 2개 이상의 금융권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한 감독체계

### 복합금융그룹 중심의 감독체계(Level 3) 구축을 우선 고려할 필요

- ✓ 현재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형 동종 금융그룹은 없는 실정**
- ✓ **개별법상** 동종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보완**되어 별도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이 낮음
  - 대부분 업권에서 K-IFRS상 연결 재무제표 작성 및 연결 자본평가가 실시 중 이거나 도입 예정
- ✓ **국제적으로** 업권별 감독체계(Level 2) 보완을 통해 감독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Level 3 감독이 강조**
- ✓ 이종 업종이 결합된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우선 대응할 필요



## 쟁점 2.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대상의 선정 기준

### 관련 참고사례

- ✓ EU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시 감독대상
  - ① 복합금융그룹 내 금융부문 자산비중이 40% 이상 or 금융회사가 모회사인 그룹
  - ② 금융권역별(은행·증권·보험)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이 전체 금융부분의 10% 초과
  - ③ 가장 작은 금융권역의 자산규모가 60억 유로를 초과
- ✓ 일본 : 모든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

### 감독대상 그룹 선정기준시 고려사항

- ✓ 금융그룹의 **자율 규제 역량**, **금융감독당국의 한정된 자원과 감독비용**
  - ➡ 감독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한정함이 합리적
- ✓ 금융산업의 규모, 제도적 특징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설정**으로 규제 순응도 제고
  - ➡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자산규모 5조원 이상)도 보편성,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음
  - ➡ 이미 통합감독이 체계화된 금융지주그룹 이외의 여타 그룹을 중심으로 기준 설정

### 금융그룹 선정기준 <1안>

#### ✓ 기준

- ①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 ②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 ③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

\* 예 : (금융그룹내 비중) 은행10%↑ & 보험↑ or 보험10%↑ & 증권↑

#### 장 점

- ✓ EU 기준 등 국제기준과 유사
- ✓ 대형 그룹에 한정되어 자율감독 역량 높음

#### 단 점

- ✓ EU기준은 대형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에 초점 → 우리산업 규모에 적용 곤란하여 감독목적 달성 어려움
- ✓ 금융그룹 내 주력금융회사의 절대비중이 높아 기준 충족이 어려움
- ✓ 감독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규제형평 시비 우려

#### ✓ 해당 금융그룹 : 3개

##### 모자형 금융전업그룹

그룹	금융자산 조원	금융자산 비중(%)
우리	270	100.0
산은	227	100.0
기은	220	100.0
교보	86	99.5
미래에셋	53	98.3

#####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

그룹	금융자산 조원	금융자산 비중(%)
삼성	313	50.3
한화	110	80.0
동부	42	80.8
태광	28	83.6
현대	20	68.7
:		

※ 감독대상 그룹의 금융회사 총자산 대비 금융권역별 자산 비중(%)

금융권역	미래	삼성	동부
은행 등 여수신	4.7	6.7	4.0
보험권역	48.8	71.9	73.8
증권권역	46.5	21.4	22.2

### 금융그룹 선정기준 <2안>

#### ✓ 기준

- ①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 ②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 장 점

- ✓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되어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
- ✓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금융자산 5조원 이상) 및 금융업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금융자산 비중 40%이상)이 모두 고려됨

#### 단 점

- ✓ 그룹내 금융자산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 비중이 낮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 해당 금융그룹 : 10개

##### 모자형 금융전업그룹

그룹	금융자산 조원	금융자산 비중(%)
우리	270	100.0
산은	227	100.0
기은	220	100.0
교보	86	99.5
미래에셋	53	98.3

#####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

그룹	금융자산 조원	금융자산 비중(%)
삼성	313	50.3
한화	110	80.0
동부	42	80.8
태광	28	83.6
현대	20	68.7
현대차	50	20.9
롯데	21	18.9
현대중	6	9.6
KT	5	13.3



### 주요 쟁점사항

#### 가.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 내부 자본거래 상계 등으로 자본의 과다계상 제거
-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 차단

#### 나. 그룹위험관리

-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인식, 측정,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위험관리 체계와 절차 마련
- 그룹 전체의 위험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

#### 다.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 계열사간 또는 소속회사 및 대주주간 이해상충 방지
- 불건전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의 집중과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안

#### 국제기준의 핵심 내용(Joint Forum)

- 자본의 중복계상 교정을 위한 통합 재무건전성 평가
  - 그룹 내부의 출자지분을 제거한 그룹 전체 적격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일 것
- 금융그룹 자본지표 산정시 비금융계열사의 자본상태도 함께 고려할 것(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조)

#### 현행 업권별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단위 자본평가 곤란

- 일부 업권은 연결평가 기준 미도입(여전, 보험)
- 연결평가의 경우에도 K-IFRS상 연결대상이 매우 협소(지분 50%이상 보유 등)
- 계열 비금융회사 등은 평가대상에서 배제

<현행 업권별 자본적정성 평가 방식>

구분	자본적정성 기준	연결	연결 기준 및 범위
은행·은행지주	BIS비율	○	보험사, 비금융사 제외
금융투자	순자본비율		비금융사 등 제외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비금융사 등 제외
보험	RBC비율	X	'16년부터 연결 추진중이나, 보험사와 보험유관자회사만 연결 예정
여신전문금융업	조정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도입계획 없음





### 그룹단위의 자본평가 방법

- 연결 대상 : 동일인 지배하의 모든 금융계열사(지배-종속 관계 무관)
- 평가 방법 : 금융그룹 연결자기자본  $\geq$  금융그룹의 필요자본

#### 금융그룹 연결자기자본(① or ②)

- ① 연결 FS작성을 통해 가용자본 산출  
⇒ 금융전업그룹 선택 용이
- ②  $\Sigma(\text{금융회사별 자기자본} - \text{계열사 출자액})$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금융그룹 선택 용이

$\geq$

#### 금융그룹 필요자본

$\Sigma(\text{금융업권 법령상 개별금융회사에 요구하는 필요자본})$

### 비금융계열사를 고려한 자본적정성 평가

- 비금융회사에 대한 국제적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고 특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  
: 국제적으로 운용사례, 합의된 방식도 없는 만큼 비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 필요
- 현행 비은행지주그룹에 적용되는 방식을 참고하는 것도 검토 가능  
: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sup>\*</sup>하는 경우 출자금액에 비례한 필요자본을 요구  
\* '09년 금산복합그룹의 금융지주체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었으나, '14년 폐지

#### 나. 그룹위험관리 체계 구축



#### 대표회사 역할

1.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위험관리정책 수립
  -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과 전략의 수립 및 적절한 자본적정성 관리,
  - 위험의 인지·측정·감시·통제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2. 소속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모범규준을 이행
  - 금융그룹별로 다양한 지배구조를 감안하여, 모범규준 이행의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역할 분담은 그룹 자율에 맡길 필요
3.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그룹의 협력 감독
  - 그룹 재무제표, 위험관리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예: 연1회)

#### 대표회사 선정

-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스스로 선정하여 금감원에 신청하여 확인 받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선정방식도 이와 유사



#### 다. 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

##### 내부통제 목적

-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금융자원 오·남용, 그룹 전반의 위험의 전이·집중·상호연계성 심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우려를 차단

##### 내부통제 기준 포함 내용

- 대표회사는 계열사와 협의를 통해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기준
  - ① 그룹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절차
  - ②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기준 및 절차
  - ③ 위반 임직원에게 대한 그룹 내 자체조치 등 포함

#### 금융감독당국의 역할

- 감독당국은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금융그룹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

#### 주무감독 부서 지정 및 역할

-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효과적 감독을 위해 "주무 감독부서"를 지정하여 그룹 재무상황을 총괄 감독

#### 감독부서간 협력체계

- 효율적 통합감독을 위해 주무 감독부서와 관련 감독부서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다수 감독부서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협업 활성화

#### 그룹의 위험관리 체계 개선 유도

- 금융그룹의 위험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필요한 개선을 권고
- 정기 보고서 작성 및 공표를 통해 자율감독 우수사례, 그룹 위험관리 노하우 등을 전파



## ■ 목 차

### I . 문제 제기

### II .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 III . 국내 금융그룹 감독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IV .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 V . 향후 과제

## V. 향후 과제

### 모범규준 마련

-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 마련 필요

### 금융그룹별 자율 준수체계 구축

-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소속회사를 통할할 수 있고, 소속회사는 대표회사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금융당국의 감독역량 강화

- 효과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
-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이종업종간 연계감독 노하우 축적 및 협업체계 확대

###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 금융그룹 자율규제체계가 성숙되고 나면 국제기준에 따른 금융그룹 감독규제를 공고히 체계화할 필요





감사합니다.